

에볼라, 말세에 나타난다는 괴질인가

박멸소탕 기도는 만병을 퇴치한다

(삿된 마음을 없애는 기도)

에볼라보다 무서운 피어볼라 (Fearbola)

에볼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차 감염을 우려하여 몇몇 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한다. 해당 학교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2차 감염이 걱정돼서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어떤 학교는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 엠버 빈슨이 뒀던 항공기를 자신의 학생들이 이용한 것으로 소문이 나서 휴교령이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에볼라 감염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에볼라 창궐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에볼라 발생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탄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YTN 10.17 참조).

피어볼라는 공포와 에볼라를 합성한 말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피어볼라가 더 무서운 것 같다.



6~7명으로 구성된 선발대 다음달 초 파견키로 "에볼라 대응 의료진 파견"



정부가 에볼라 발생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한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sbs에서 캡처)

에볼라는 어떤 병인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은 1976년에 처음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사담과 유인원에 감염 시 전신에 출혈을 동반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법정 전염병 제4군에 해당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또는 분비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분비물에 오염되어 있는 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환자는 고열과 두통 및 근육통, 그리고 위의 통증과 심한 피로 및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5~7일째에 대개 구진 같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지며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볼라 출혈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가 발병하면 격리를 통해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DAUM 백과사전 참조).

말세에 나타난다는 괴질

구세주는 말세를 이루는 주인공이다. 말세란 인간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천지개벽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말세란 사람이 많이 죽는 공포감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개벽을 뜻하는 좋은 개념이다.

그런데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삼재(三災)가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삼재란 세계를 파멸하는 화재(火災), 수재(水災), 풍재(風災)의 세 가지 큰 재난을 뜻하는 말이다. 강강산 선생은 "괴질은 한국에서 처음 발병하는데 병겁이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군산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도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시발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道典7:41)"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도 "이제는 길어가다가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는 시대가 온다. 조금 있으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을 알고 마귀가 한 생명이라도 삼켜버리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실' 리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써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격암유록에는 세말하게 써어 있다.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니까 심장마비로 떨어져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2000.10.24. 말씀)"라고 하셨다.

삼년 흉년 2년 괴질

격암유록에는 말세에 삼년간 흉년이 들고 2년간 괴질이 든다고 예언되어 있다. 三災八亂 併起時에 時를 아노 世人들아 삼재팔란 병기시 시 세인 三年之凶 二年之疾 流行變萬國時에 삼년지흉 이년지질 류행은역만국시 삼재와 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삼년간의 흉한 일과 이년간의 괴질이 유행하는 돌림병이 만국을 휩쓸 때에 吐瀉之病 喘息之疾 黑死枯血 無名天疾 토사지병 천식지질 흑사고혈 무명천질

朝生暮死 十戶餘一 조생모사 십호여일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병과, 피가 굳어져서 까맣게 타서 죽는 이름 모를 전질(天疾)로서,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 죽음으로 열 집에 한 집만 살아남았구나(격암유록 가사총론歌辭總論).

무서운 예언이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열 가구 중 한 가구만 살아남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박멸소탕 기도로 괴질 범접 못해

이렇게 무서운 괴질이 들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격암유록에는 구세주(정도령)가 창안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마귀 죽이는 기도, 즉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괴질이 없어진다는 예언이다.

當服海常誦咒 萬鬼皆消海印세 당복해마상송주 만귀개소해인

인류의 엄마인 구세주(정도령)님께 복종하고, 정도령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는 마귀마음'을 없애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해인(海印)을 받아먹어야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예언이다. 구세주께서 창안하신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에볼라는 격암유록에 예언된 괴질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튼 어떠한 괴질이 오더라도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퇴치가 된다. 절대 박멸소탕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박멸소탕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다. 구세주께서 마귀 죽이는 영력(靈力)을 불어넣은 기도이다. 사람이 이 기도를 외울 때 구세주 분신이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마귀가 괴질을 일으킬지 모른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김중천 기자

인사 발령

평택제단 시무승사 한강현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7)

“신앙은 단계별로 순서껏 올라간다”

1단계: 참는 단계

이 길은 마음의 싸움의 길인 고로 처음에는 모든 일에 참아야 되는 것이다. 감정 나는 대로 발표를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도 참고 저런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다.

2단계: 감사하는 단계

울화통이 터질 일을 당해도 참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눈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3단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를 쓰는 단계

초초로 내 주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고, 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애걸복걸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범죄가 되는 고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단계이다.

4단계: 오직 구속한 내 주님만 보이는 단계

주님을 억만만분의 일 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단계이다. 온전히 나라는 상태를 잊어버린 단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완전히 나를 잊어버린 단계이다.*

구도의 길

비교하지 마라

'나'로부터 비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죄가 된다

흔히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말하곤 한다. "옆집 누구는 공부 잘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옆집 남자는 매일 집에 일찍 들어오는데 당신은 왜 만날 늦느냐"며 비교한다.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는 순간 기분 나빠진다. 특히 부부간의 경우에는 "당신은 말마다 옆집 남자와 나를 비교해야 돼" 하면서 결국에는 싸움으로 발전한다. 말 한 마디 잘못 일어나 사네 못 사 내 하게 된다. 비교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자유율법 상으로는 죄가 된다.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라는 열등한 비교에서부터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은혜도 못 받은 것들이 잘난 체 하기는...' 자신이 잘났다는 것까지 모두 '비교하는 음란죄'에 걸린다. '나'라는 것이 있으니 상대와 비교를 하게 된다. '나'라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인데 바로 그 굴을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진다고 한다. 명작 동화 <백설공주>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 자신보다 예쁜 사람을 말하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비교하는 마음이 시기심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사람을 죽이라고도 한다. 여자의 불행은 거울의 발견 때문이 아닐까.

거울 앞에선 여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진다고 한다. 명작 동화 <백설공주>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 자신보다 예쁜 사람을 말하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비교하는 마음이 시기심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사람을 죽이라고도 한다. 여자의 불행은 거울의 발견 때문이 아닐까.

새연재 / 김만철 탈북기 승리신문 최초 취재 6면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몸처럼